

내년 지구촌 40개국 선거 역대 최대

전 세계 인구·GDP 40% 차지 대만 총선 미·중 사이 변곡점 이란·러시아 권위주의 강화 우려 고령 후보 경쟁 11월 美 대선 주목

2024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으로, 이들 국가는 인구 기준 전 세계의 41%,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인 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총 40번의 선거가 열린다.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이같은 상황을 '전례 없는 투표 축제'라면서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super bowl)에 빗대 '민주주의의 슈퍼볼'로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 "역설적으로, 고전적 형태의 자유 민주주의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권위주의자와 독재자들, 헝가리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 베네수엘라부터 차드까지 군사쿠데타 모의자 및 이슬람 무장세력으로부터 실존적 공격을 받는 순간"에 일련의 선거가 진행된다고 짚었다.

나라별로 보면 '투표 축제'라기엔 위태로운 사정을 가진 곳이 많다.

이란에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내년 3월 1일 총선이 치러진다. 여성의 하급 직업을 강제하는 등 강경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을 몰아낸다면 민주주의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이미 현실은 그와 다르다.

야당 후보자 중 25% 이상이 자격을 상실했고,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가디언은 "2024년 최강 가짜 선거의 타이틀은 러시아에 돌아가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다섯번째 출마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제국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대만 정부의 선거는 중국의 압

박 국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이 다시 승리한다면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과 역내 다른 동맹국들을 빠르게 끌어들이 수 있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도 내년 봄 총선을 치른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선은 야권 28개 정당의 연합인 인도국민개발 포괄동맹(INDIA)에 의해 좌절될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남아공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30년간 장기 집권 중이지만, 이번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NC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과 높은 실업률,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 등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튀니지, 가나, 르완다, 나미비아, 모잠비크, 세네갈, 토고, 남수단도 내년 선거를 치른다.

전적으로 민주주의 절차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 봄 5년 임

기가 끝난다.

계엄령에 따라 선거 절차는 중단된 상태지만, 내부 긴장과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판으로서 선거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예정되지 않았던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에서 각각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유럽이 또다시 이주민 대량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최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처럼 민족주의, 반이민, 외국인 혐오 등을 앞세운 극우 정당들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선거는 내년 11월 2명의 고령 후보가 경쟁하는 미국 대선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부에 따라 국제 질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베오그라드 세르비아혁신당(SNS) 본부에서 무대에 올라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이날 개표가 76%까지 이뤄진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승리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이어 독일도 전기차 보조금 중단

돌연 결정에 업계 강력 반발

독일 정부가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이날이 전기차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지난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험 결정을 내리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 연립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축소를 결의하며 예산 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애석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독일은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한명당 수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중국, 미

국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이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기차 210만대에 100억 유로(약 14조1560억원)가 지급됐다.

앞서 프랑스 정부도 내년 1월부터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오인사실' 인질 애도하는 친지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쉐파임 키부츠(집단 농장) 공동묘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알론 샴리츠(26)의 가족과 친구들이 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5일 가자지구에서 교전 중 샴리츠 등 인질 3명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오인하고 사살했다. /연합뉴스

칠레, 군부독재 시절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려던 남미 칠레의 계획이 작년 이어 올해 또 다시 국민투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칠레 선거관리국(Servicio Electoral)은 17일(현지시간)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개표율 99% 기준 반대 55.75%, 찬성 44.25%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 등 현지 매체는 개표 추이로 볼 때 과반 찬성이 필요했던 개헌안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선거관리국을 인용, "독재 시대 헌법을 대체하려던 보수 성향 헌법안을 칠레 국민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진보적 이념이 대거 반영된 헌법안이 지난해 부결된 이후 1년여 만의 재시도였다. 이번엔 보수 색채 짙은 조항들로 채워졌지만, 일부 논란 속에 결국 민심의 외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해묵은 헌법을 갈아 치우자는 사회적 요구가 간헐적으로 분출된 가운데 2019년 10월 사회 불평 등 항의의 시위를 계기로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됐다. '피노체트 군부 독재 헌법'이 불평 등을 조장하고 성별·계층 간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국민투표에서 78%의 국민이 피노체트 헌법 폐기에 찬성한 이후 2021년 출범한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원주민과 무소속 등 진보적 성격의 인물로 꾸려진 제헌의회 헌법안을 지난해 9월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거센 반대(61.9%)에 부닥친 바 있다.

이후 올해 헌법 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우파 다수로 구성된 제헌의회 성격의 헌법위원회는 보수적 내용의 헌법안을 다시 만들어 정부에 전달했으나, 이 법안마저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명품 싸늘이 유커는 옛말

쇼핑 뒷전 관광명소 셀카에 만족
적 전망치를 36%나 깎았다.

명품 싸늘이 쇼핑에 나섰던 중국인 해외 관광객(유커)들이 달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젊은 유커 중심으로 관광 명소를 찾아 다니면 셀카를 찍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품업체들의 실적을 통해서다.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는 지난달 1일 내년 매출 증가를 전망치를 5~7%에서 -2%로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17% 급락해 2017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아시아 여행 소매 사업 실적의 압박이 예상되고 중국 본토 회복세가 기대보다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론의 배경이다.

또다른 명품 화장품 업체인 시세이도도 지난 달 중국 및 여행 소매 부문의 부진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36%나 깎았다.

바클리 등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프랑스 고가 브랜드 루이비통을 소유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투자 의견을 내리기도 했다.

백화점 하비니콜스를 운영하는 디스콘셉트는 공시를 통해 "홍콩으로 가는 중국 여행객들이 팬 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처럼 쇼핑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행 데이터 제공업체 중국트레이딩데스크의 수브라마니아 바트 대표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관광의 주요 세력국으로 부상한 중국 젊은 층이 변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여행객의 약 63%가 40세 미만으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는 쇼핑은 뒷전이고 개인적인 여행 경험을 쌓으려는 경향이 담겼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퍼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